

중국어 가능표현 구조 ‘V得/不C’의 문법화*

李宇哲**

目 录

1. 서론
2. ‘V得/不C’의 내부구조
3. ‘V得/不C’구조의 문법화
4. 결론

1. 들어가는 말

중국어 ‘V得/不C’¹⁾구조는 상태를 표시하기도 하고, 가능의 의미를 표시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본 연구는 가능의 의미를 표시하는 경우를 논의 대상으로 하여, 문법화 이론의 각도에서 ‘V得/不C’의 내부 구조와, 이 구조가 표시하는 가능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V得/不C’구조를 가능보어 구조의 틀 속에서 설명하여 왔다. 그리고 가능보어 구조를 ‘V得/V不得’, ‘V得/不了’, ‘V得/不C’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방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 분류에 대하여 몇 가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통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V得/V不得’는 ‘V得/不了’, ‘V得/不C’보다 출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慶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1) V는 주로 동사, C는 보어의 이니셜이다. 언어 사용에서 긍정 표현과 부정 표현이 반드시 대칭적으로 쓰이지는 않는다는 특징은 모두가 공인하는 바이며, ‘得’와 ‘不’의 쓰임 또한 대칭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현이 앞선 구조이고, 그 의미 또한 동작 실현의 가능성에 대해 표시할 뿐, 'V得/不了'나 'V得/不C'처럼 동작의 결과에 대한 가능성은 표시하지 않으므로 같이 평행선상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得/V不得' 구조는 주 논의에서 제외된다. 'V得/V不得' 구조를 논외로 하면, 가능보어의 유형은 공시적인 입장에서 분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V得/不了', 'V得/不C' 두 유형이 남는다.

둘째, 남은 두 유형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 구분이 있는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V得/不C'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결과 혹은 방향보어와 그 앞의 동사(C) 사이에 '得/不'를 삽입하여 가능이나 혹은 불가능을 표시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설명에 논리적인 모순은 없는가?

본 연구에서는 'V得/不C' 구조와 그의 내부 성분인 'VC'와의 조합과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위의 둘째와 셋째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한 연후에 문법화 이론의 각도에서 'V得/不C' 구조가 가능의 의미를 표시하는 새로운 구조의 틀로 문법화 되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2. 'V得/不C'의 내부구조

문법화 이론의 연구에서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원래 언어 현상에 대하여 공시와 통시로 구분하여 연구하지 않는다.²⁾ 그러나 R. Jakobsn에 따르면 언어 현상의 변화는 처음부터 공시적 현상이며 따라서 공시적 분석은 반드시 언어학적 변화를 포괄해야만 하고 역으로 언어학적 변화는 공시적 분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³⁾ 본문은 R. Jakobsn의 의견에 동감하는 입장에서

2) “문법화론에서는 공시와 통시로 언어 현상을 구분해서 기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공시적 변화는 동시에 『통시적 진화(évolution diachronique)』의 한 『면(phase)』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심을식(2008)에서 인용.

3) R. Jakobsn에 따르면 “언어현상의 변화는 처음부터 공시적 현상이며 따라서 공시적

논리를 전개하기로 하겠다. 따라서 'V得/不C'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공시적인 각도에서 분석하고, 동시에 이 구조의 통시적인 변화의 양상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어법서나 연구 논문에서 사용하는 'V得/不C'구조의 명칭은 크게 '가능보어'와 '보어의 가능식'이란 두 가지로 대별된다. 이 중에서 대외 중국어 계통의 어법서나 연구서에서는 대부분 '가능보어' 범주에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 'V得/不C'구조와 가능보어

일반 어법서는 가능보어 구조를 보통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V得/V不得', 'V得/不了', 'V得/不C'가 그 세 유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 유형으로의 분류가 적절한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⁴⁾ 'V得/V不得'은 남은 두 유형에 비하여 탄생 시기가 이르고⁵⁾, 가능이라는 단일의미를 표시하는 새로운 구조식으로 문법화된 'V得/不C'구조에서 구조 내부의 'C'가 '了'인 경우를 따로 한 유형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V得/不C'구조와 이 구조의 내부 조합 성분인 'VC'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2) 'V得/不C'와 'VC'

'V得/不C'구조에 대하여 黃伯榮·廖序東(1991)은 '가능보어'란 용어를 사용하고 설명하길 "결과보어나 방향보어와 그 앞의 중심어 사이에 '得/不'을 삽

분석은 반드시 언어학적 변화를 포괄해야만 하고 역으로 언어학적 변화는 공시적 분석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같은 책에서 재인용.

4) 이우철(2000, 2007)에서도 비슷한 견해가 보인다.

5) 吳福詳(2001) 31쪽을 참조.

입하여, 가능이나 혹은 불가능을 표시한다.” 라고 하였다.

“...일부 가능보어는 대응되는, ‘得/不’을 가지는 구조(VC)가 존재하지 않는다. ‘等不及’와 ‘等得及’, ‘來得了’와 ‘來不了’, ‘對得起’와 ‘對不起’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은 습관어로서 구조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⁶⁾

丁聲樹(1961) 또한 ‘V得/不C’구조에 대하여 黃伯榮(1991)과 명칭 사용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V得/不C’구조를 ‘보어의 가능식’이라 표현하고, 이 구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동사와 보어 사이에 ‘得’이나 ‘不’을 삽입하여 가능성을 표시한다.”⁷⁾

黃·廖(1991)과 丁聲樹(1961)의 견해는 ‘V得/不C’의 구조에 대한 공시적인 분석은 동사‘V’와 보어‘C’ 사이에 ‘得’나 ‘不’를 삽입해서 가능이나 불가능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어 연구자들은 이러한 견해에 동감하며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으나 본문의 생각은 좀 다르다. 본 논문은 黃·廖(1991)의 설명에서 특히 ‘삽입하여’라는 주장에 대하여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黃·廖(1991)의 설명대로라면 ‘V得/不C’구조는 ‘得’나 ‘不’가 삽입되기 전에 이미 그 ‘得’나 ‘不’가 삽입되어야 할 ‘VC’구조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언어 사실을 조사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적잖은 경우에 ‘V得/不C’구조에 해당하는 예는 존재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VC’의 예는 없거나 혹은 자립적이지 않은데, 黃·廖(1991)의 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들은 이들 현상을 습관어로 처리하여 문법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초기 연구에서 ‘V得/不C’구조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설명을 하였던 劉月華(1983)는 ‘V得/不C’구조에 대응하는 ‘VC’가 존재하지 않는 예의 구조를 숙어(熟語)성 ‘V得/不C’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6) “...也有少數可能補語沒有相應的不帶‘得/不’的格式, 例如‘等不及: 等得及’, ‘來得了: 來不了’, ‘對得起: 對不起’, 這是一些習慣語, 不必作句子成分的分析” 黃伯榮·廖序東(1991) 95쪽.

7) 丁聲樹等(1961) 60쪽을 참고.

“이런 유형의 가능보어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자주 사용되는 예로 ‘禁得住/禁不住’, ‘經得住/經不住’, ‘劃得來/劃不來’, ‘說得攏/說不攏’, ‘經得起/經不起’ 등이 있으며, 이들의 의미는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⁸⁾

劉月華(1983)는 ‘VC’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V得/不C’구조의 형식을 취하는 예들에 대하여, 그 수가 많지 않고, 사전을 이용하여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그들을 숙어(熟語)성 어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예문(2-3)에서 보이는 ‘始料不及’나 ‘躲避不及’ 같은 언어현상을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어찌되었건 黃·廖(1991), 劉月華(1983)도 ‘V得/不C’구조와 ‘VC’가 일대일 대응되지 않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들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예외로 처리해 버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趙元任(1968: 212)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보인다. 그는 “이런 유형의 가능보어 중에서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來得及’와 ‘來不及’ 같은 경우는 가능식에만 출현하고 그에 대응되는 ‘來及’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趙元任(1968: 212)은 ‘來得及’와 ‘來不及’와 같은 가능식은 존재하면서도 그 가능식을 존재하게 하는 원형의 구조인 ‘來及’조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를 어휘형 조합으로 보고 있다. 이는 劉月華(1983)의 견해와도 흡사하다. 그러나 언어 현상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왜냐하면 언어현상은 ‘來及’의 조합도 어휘결합단위가 아닌, 문장 단위에서는 자연스럽게 쓰이는 경우가 있음을 아래 예문(1)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문은 이들 현상들도 하나같이 모두 ‘V得/不C’구조의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성된 언어 현상들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다.

- (1) 我還沒來及給你說, 你就發這麼大的脾氣!(내가 아직 너에게 말도 하기 전에 너는 이렇게 큰 화부터 내느냐!)

8) “...這類可能補語的數目不多,常用的如:‘禁得住/禁不住’, ‘經得住/經不住’, ‘劃得來/劃不來’, ‘說得攏/說不攏’, ‘經得起/經不起’等等, 其意義大多能在詞典里查到。” 劉月華(1983) 356-357쪽.

예문 (1)에서 출현한 ‘來及’의 결합에는 문제가 없다. 이는 그 조합의 결합 단위가 어휘결합의 단위보다 상위의 단위인 문장의 단위에서는 출현이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부사 ‘還’와 ‘沒’와 결합한 형태로 출현하고 있으나 이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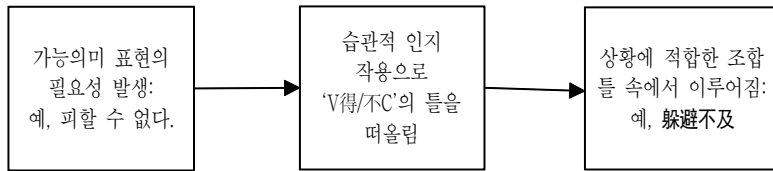
이 대목과 관련하여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V得/不C’구조의 ‘VC’에 해당하는 ‘來及’의 ‘V’인 ‘來’를 다른 동사로 대체하여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及’의 조합능력은 생각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 (2) 小小的中微子竟給天文學帶來這麼大的麻煩，這是始料不及的。(조그만 중성미자가 천문학계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가져올 줄은 예상치도 못한 일이다.)
- (3) 她躲避不及，當場被病人打得嘴角流血。(그녀는 제 때에 몸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환자에게 입가에 피를 흘릴 정도로 얻어맞았다.)

예문 (2)는 ‘VC(來及)’의 ‘V(來)’를 다른 동사 ‘始料’로 대체한 예이고, 예문 (3)는 ‘躲避’로 대체한 예이다. 본문은 ‘始料不及’와 ‘躲避不及’마저도 ‘V得/不C’구조의 체계에서 기인에서 생성된 언어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는 黃·廖, 劉月華, 趙元任 등의 견해와는 다른 것이다. 그들은 위 (2), (3)의 현상을 전형적인 가능의미를 표현하는 어법 체계에서 제외시켜서 어법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본문에서는 이들 현상도 마찬가지로 ‘V得/不C’구조의 틀에서 탄생한 실제 언어 표현들이라고 보는 것이며, 이 현상을 문법화의 기제의 하나인 유추라고 생각한다. 유추와 문법화의 관계는 그림 (2)를 참고하기 바란다.

중국어 사용자들은 가능의미를 표시하면서 습관적으로 ‘V得/不C’구조를 상용하게 되었고, 가능의미를 표시해야 할 구체적인 상황은 매우 다양하기 나타나기 때문에 ‘V得/不C’구조는 그 생산능력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생산능력이 강하다는 말은 이 구조로부터 생산되어지는 가능표현 의미의 예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 사용자들은 가능

의미를 표현할 때는 습관적으로 'V得/不C'구조의 틀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이 구조를 생겨나게 하는 'VC'조합의 가능성과는 별도로 'V得/不C'구조는 가능의미를 표현하는 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모두 인간 사유의 유추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문 (3)과 같이 중국어 사용자가 'V得/不C'구조를 이용하여 가능의미를 표현하는 과정을 그림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능표현을 모두 'V得/不C'구조로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주관적 조건 혹은 객관적 조건이 어떤 결과와 방향의 실현을 허락하거나 혹은 허락하지 않는지를 표시하는 상황 하에서의 가능의미를 표시하는 새로운 구조로, 중국어 사용자들은 'V得/不C'구조를 이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조합은 黄·廖(1991; 95)처럼 '습관어'로 여겨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문 (1)에서 (2)나 (3)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동보 'VC(來及)'도 파생 생산성(productivity)이 매우 강하고 역시 'V得/不C'구조의 틀에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劉月華(1983; 357)의 말처럼 그 조합의 의미들을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중국어 사용자들은 'V得/不C'구조의 틀 속에서 조합되어 탄생한 '始料不及'와 '躲避不及'와 같은 언어 현상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국어 사용자들은 'V得/不C'구조를 '가능의미'를 표시하는 틀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始料不及'와 '躲避不及'와 대응하는 '始料及'나 '躲避及'는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 조합이지만, 중국어 화자는 이를 주의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사와 보어의 결합인 ‘始料及’나 ‘躲避及’가 없는데 어떻게 가능의미를 표시하는 ‘始料不及’와 ‘躲避不及’의 조합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은 이를 유추의 결과라고 본다. 즉 중국어 화자에게 있어서 ‘V得/不C’구조는 그 자체가 가능의미라는 하나의 틀로서 인지된다고 보기 때문이며, 그 구조의 틀은 매우 다양한 언어 현상들을 창출해내는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V得/不C’구조를 ‘得/不’의 삽입으로 설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趙元任(1968: 210)의 언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동보(VC)구조가 있고 그 동사와 보어가 모두 자유로운 성분일 때는, 이론적으로 그 동사와 보어 사이에 반드시 ‘得’과 ‘不’을 끼워 넣을 수 있다”⁹⁾고 하였다. 이 말은 단어로서 결합이 긴밀한 동보조합에는 그 사이에 ‘得’과 ‘不’을 삽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예, *改得善, 改不善) 이 말은 역으로 다시 말하면 동보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得’과 ‘不’이 삽입이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 예문 (4), (5), (6)은 위의 동보구조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4) 日中關係繞不過‘參拜’這道坎。(중일관계는 ‘신사참배’란 이 난제를 피해갈 수가 없다.)

예문 (4)의 ‘繞不過’에 대응하는 ‘繞過’¹⁰⁾는 그다지 쓰임이 자유로운 결합은 아니다. 그러나 ‘繞過’의 결합자체는 자유로운 결합이 아닐 수 있으나, 거기에 ‘不’가 더해진 ‘繞不過’는 상용되는 표현이다. 그리고 ‘繞過’의 내부구조도 일

9) “如果動詞和補語都是自由的, 那就一定加得進‘得’和‘不’。” 趙元任(1968: 210)을 참조.
10) ‘연동’구조가 ‘동보’구조로 문법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나, 현대 중국어에서도 보면 대부분 ‘연동’구조이지 ‘동보’구조라고 보기 어려운 현상이 많았다. 다만 여기서는 이를 논하지는 않았다. 만약 ‘연동’구조라면 이 또한 ‘동보’구조 사이에 ‘得/不’을 첨가하여 가능보어 구조를 만든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문법화가 되었기 때문에 ‘연동’구조이건 ‘동보’구조이건, 이미 ‘가능의미’를 표시하는 ‘V得/不C’구조의 틀에서는, 그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조의 틀 전체로서 역할이 중요하지 그것의 내부 구조가 ‘연동’구조인지 ‘동보’구조인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반적으로 동보구조로 분석하고 있으나, 예문(4)의 경우, 의미를 중심으로 보면 '繞過'의 의미 중심이 '繞'보다는 오히려 '過'에 있지는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 측의 '신사참배' 문제는 극복해야할 문제이다. 그런데 이 '극복하다'란 의미는 '繞'보다는 '過'가 표현해준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두 글자의 원래의미가 '繞'는 돌아가는 의미가 강하고, '過'는 통과하는 의미가 강한 것을 참고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繞過'의 결합은 '동보'적 관계보다는 병렬관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 예를 더 보도록 하자.

- (5) 這個發言，引導會議繞過暗礁，撥正方向，回到了正確的軌道上來。(이 발언은 회의가 암초를 돌아 지나서 방향을 바꿔 정확한 길로 돌아오게 했다.)
- (6) 向西繞過非洲南端的好望角，可達大西洋。(서쪽으로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서 지나면 대서양에 다다를 수 있다.)

예문 (5)는 周恩來가 1955년 인도네시아의 반동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당시 체제나 이념 등이 문제로 어수선 했던 회의 분위기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되돌렸다는 내용을 말한 것이다. 예문 (4)와 마찬가지로 예문 (5) '繞過'의 의미 중심 또한 '繞'보다는 오히려 '過'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수선했던 회의 분위기가周恩來의 발언으로 '어수선했던 암초를'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문 (6)에 쓰인 '繞過'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병렬관계의 연동구조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繞過'의 의미는 '돌아서 지나가다'이고, 배로 항해하는 경우 대서양에 다다르려면 돌아서 지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예문 (4), (5), (6)를 들어서 '동보'구조와 '연동'구조를 설명한 것은 '동보'구조로의 분석과 '연동'구조로의 분석은 문맥 속의 문장의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사실 '繞過'를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의 코퍼스¹¹⁾를 이용하여 검색한 대부분의 '繞過'는 연동구문으로 이해해도 무

방한 것이 많았다. 만약 연동구조로 분석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동사와 보어가 모두 자유로운 성분일 때는 그 사이에 ‘得’와 ‘不’을 끼워 넣을 수 있다.”는 趙元任의 위에 언급은 “동보구조 뿐만 아니라 연동(VC는 동사+동사의 관계)구조 일 경우도 ‘得’과 ‘不’을 끼워 넣을 수 있다.”라고 동보구조의 이해 범위를 크게 이해해도 무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V得/不C’구조의 생성 근거가 ‘동보’뿐 만 아니라 ‘동동’구조에서도 이뤄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V得/不C’구조의 생성 범위가 더욱 넓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미 ‘가능의미’를 표시하는 ‘V得/不C’구조의 틀에서는, 구조의 틀 전체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 그것을 구성하는 ‘VC’의 내부 구조가 ‘연동’구조인지 ‘동보’구조인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V得/不C’구조의 틀에서 생성되는 가능표현의 생성 양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 (7) 香不過肉桂, 醇不過水仙。¹²⁾ (향으로는 계피차만 한 것이 없고, 깨끗하기로는 수선차만 한 것이 없다.)

예문 (7)에 쓰인 ‘香不過’, ‘醇不過’는 ‘V得/不C’구조의 틀에서 생성된 구체적인 언어현상이다. 그런데 ‘香不過’, ‘醇不過’에 쓰인 ‘香’과 ‘醇’은 형용사이고, ‘香不過’, ‘醇不過’에 대한 대응 ‘VC’인 ‘香過’, ‘醇過’는 조합이 되지 않는다.

예문 (7)은, ‘형보’조합인 ‘香過’와 ‘醇過’의 조합이 그 자체로는 조합이 불가능하지만, ‘V得/不C’구조의 틀로는 조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는 ‘V得/不C’구조가 이미 전형적인 예들에 의해서 가능의미를 표시하는 구조의 틀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에 그 틀을 통하여 ‘香不過’, ‘醇不過’ 같은 예가 유추되어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得/不C’구조의 틀에서 유추되는 ‘香不過’, ‘醇

11)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xiandai

12) 무이산(武夷山)쪽에서 차평(茶評)을 하면서 하는 말이다.
<http://bbs.sssc.cn/viewthread.php?tid=1928252>을 참조.

不過'는 다시 유사한 형태의 유추를 동반하게 된다.

- (8) 最香不過龍肉, 最親不過娘舅。(용의 고기가 최고로 맛있고, 외삼촌이 가장 친하다.)
- (9) 任何困難都難不倒英雄的中國人民。(어떤 어려움도 영웅적인 중국인민을 무너뜨릴 수 없다.)

예문 (8)의 '親不過'와 예문 (9)의 '難不倒'도 예문 (7)처럼 '親過', '難倒'의 결합은 자유롭게 조합이 되지 않으나 틀 속에서는 조합이 가능한 '형용사+보어'의 구조이다. '香不過', '醇不過'와 같은 언어현상의 평행과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V得/不C'구조의 틀 속의 내재 성분인 '형용사+보어'조합이 일반 언어 현상에서 많이 출현하면 'VC'에서 'V'는 언어 환경에 따라서는 형용사까지도 포함시켜야 하는 범주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중국어 현상에서 'V得/不C'구조의 틀을 벗어난 '香過', '醇過', '親過'는 존재할 리 만무하다. 즉, 바꾸어 말하면 'VC'가 없이도 생성되는 'V得/不C'구조의 언어 현상은 더 많다는 말이며, 'V得/不C'구조가 '동보'구조 사이에 '得/不'를 삽입하여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V得/不C'구조의 틀에서 생성되는 가능의미 표현의 구체적 언어 현상은 그 생산성이 대단히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습관어도 아니고 사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들 현상에서 보이는 'V得/不C'와 'VC'의 내재적 관계를 문법화의 기제인 유추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유추는 원형(prototype)범주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앞서 본문은 'V得/不C'구조는 그 자체의 틀로서 중국어 사용자에게 인지된다고 하였다. 'V得/不C'구조의 틀과 원형이론을 연결하면 'V得/不C'구조의 틀에서 나온 전형적인 예를 원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형적이라는 말은 'V得/不C'구조에 대응하는 'VC'가 자유롭게 결합하는 언어 현상을 말한다. 다음 그림(2)와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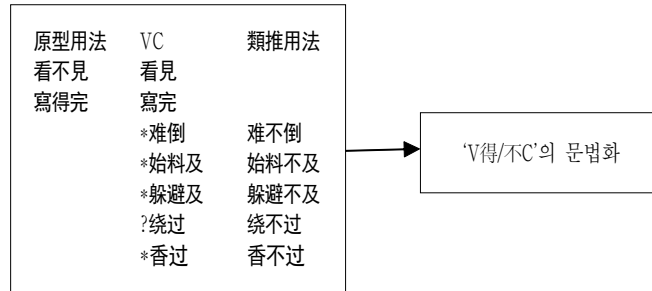


그림 (2)

그림에서 '看不見'은 'V得/不C'구조의 틀에서 생성된 현상이고, 그에 대응하는 '看見'도 자유롭게 결합이 되는 조합이다. '寫得完'과 '寫完'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때 우리는 '看不見', '寫得完'을 원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 반해 '難倒'는 결합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에 대한 부정의 가능표현인 '難不倒'는 조합이 가능하다. 이하의 '始料及', '躲避及', '?繞過', '香過'도 모두 자유롭지 못한 결합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가능표현은 모두 가능한 결합이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看不見', '寫得完'과 같은 수많은 전형적인 원형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구조의 틀인 'V得/不C'구조는 중국어 사용자들에게 가능의미를 표현하는 구조의 틀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원형들에 의해 그 형식인 구조의 틀은 언어사용자들에게 특정한 의미, 즉 가능의미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따라서 '難倒'나 '始料及', '躲避及', '?繞過', '香過' 등과 같은 조합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가능식은 모두 습관적으로 원형의 틀을 향한 유추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3. 'V得/不C'구조의 문법화

이미 'V得/不C'와 'VC'의 관계를 논하면서 'V得/不C'구조의 문법화를 일부 언

급하였다. 일반적으로 문법화(grammaticalization)란 두 가지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는 어휘 의미의 허화로 이루어지는 문법화이다. “‘把’, ‘被’, ‘從’ 등이 동사에서 그 의미의 허화가 이루어지면서 전치사로 문법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그 예이다. 이 문법화의 개념은 중국인에 의하여 13세기에 제시되었다.”¹³⁾

둘째는 “문법 범주와 문법 성분의 출현과 형성 과정을 말하는 경우이다. 어떤 특정한 구조가 특정한 언어 환경에서 새로운 문법기능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두 개념 중에서 첫째 개념은 근대한어의 연구에 특히 많이 적용되었다. 고대한어에서 없었던 새로운 구문 즉, ‘把’자문이나 ‘被’자 피동문 등이 새로 생기거나 상용화되고 ‘從’자와 같이 자형(字形)의 변화 없이 의미의 허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사에서 전치사로 변화되어 기능하는 변화가 많이 발생한 시기가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문법화의 개념은 논의 대상이 ‘V得/不C’구조와 관련된 것이므로 두 번째 문법화와 관련이 깊다. 물론 ‘V得/不C’구조는 그 내부 구성 요소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첫째 개념의 문법화의 내용도 포함한다. ‘V得/不C’구조와 관련있는 기존 연구에서도 이 두 가지 측면의 문법화가 모두 존재한다. 전자의 예로 石毓智(2004; 137-138), 尹有貞(2006)이 말한 ‘得’의 문법화를 들 수 있다.¹⁴⁾ 후자의 예로 吳福詳(2002)이 연구한 ‘V得/不C’구조의 문법화를 들 수 있다. 중국어 연구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는 많으나 후자 즉, 언어의 변화 과정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구조에 대하여 문법화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는 학자는 소수였다. 또한 문법화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한 새로운 구조식(즉 구조단위의 조합이나 문장)의 예도 많지 않다. 영어의 예를 설명한 것이기는 하지만 徐盛桓(2002, 2005)의 연구가 어휘의 문법화가 아닌 문장 형식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문법화로 설명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렇다면 가능의미를 표시하는 ‘V得/不C’구조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언제

13) 沈家煊(1994; 17)을 참조.

14) 이는 ‘V得/不C’에 쓰인 가능 표시어의 문법화의 설명에 한정하여 말한 것이다. 石毓智의 전체적인 문법화에 대한 관점은 당연히 어휘의 어휘와 구조의 문법화를 포함한다.

생겨난 것일까? 문법화 이론을 적용하여 ‘V得/不C’구조를 설명한 吳福詳(2002)의 연구에 의하면 원래 가능성 범주는 ‘가능성 표시 조동사’로 표현된다. 그 결합방식을 구조식으로 표시하면 ‘조동사+ 동사’¹⁵⁾가 될 것이다. 그런데 송대(宋代) 이전에 ‘조동사+ 동사’구조로 표시할 수 있는 가능의미는 지금과 다르다. 즉, ‘조동사+ 동사’구조로써는 동작의 실현 가능의미만을 표시할 수 있고, 동작의 결과에 대한 가능의미는 표현할 수가 없다. 동작의 실현 가능의미만을 표시하는 구조식을 ‘Va+ V’¹⁶⁾라고, 동작의 결과에 대한 가능의미를 표시하는 구조식을 ‘Va+ VC’라 하면, 송대 이전에는 조동사를 이용한 가능의미의 표시가 ‘Va+ VC’가 아닌 ‘Va+ V’에 머문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 중국어의 변화 발전 과정에서, 위 ‘조동사+ 동사’구조의 내부 요소인 ‘동사’가 ‘동보’ 결합체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자 간에 이견은 있지만 위진남북조 시기 이후 표현의 세밀화를 위하여 ‘동사’가 점차 ‘동보’구조로 발달하게 된다.¹⁷⁾ ‘동사’가 점차 정보 전달이 세밀한 ‘동보’구조로 변화하면서 이제 조동사를 이용한 가능의미의 표시는 ‘Va+ VC’의 구조식에 이르게 된다.

吳福詳(2002; 31)에 의하면 늦어도 위진남북조 때까지는 동보구조 ‘VC’조합이 생겨났다. 그리고 육조시대 이후 아직 가능의미를 표시하는 ‘V得/不C’구조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그림(3)처럼 동사와 술보구조(본문의 동보구조)사이에는 공백이 있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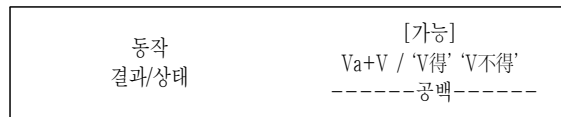


그림 (3)

15) 조동사는 가능표시 조동사를 말하며 能, 可, 可以, 得 등이 있다. 吳福詳(2002; 31)을 참조.

16) Va는 가능성을 표시하는 조동사를 표시한다.

17) ‘표현의 세밀화’에 대해서는 袁毓林(2004)을, ‘동보’구조의 발달에 대해서는 石毓智(2004)의 제4장, 제5장, 제6장을 참조.

위 표18)의 내용은, 당시에 동작의 실현에 대한 표현은 'Va+V'구조나 'V得', '不V得'형식으로 충당하였고, 당시 이미 'VC'조합이 생겨나서 동작의 결과나 상태를 표시하고 있었으나 그에 합당한 가능성 표현구조는 공백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V得/不C'구조가 탄생되었다고 吳福詳(2002: 31)은 주장하는 것이다.

4. 결 론

이상에서 본 연구는 중국어 가능표현 구조인 'V得/不C'에 대하여 문법화 이론의 각도에서 논의하였다. 'V得/不C'구조에 기존 연구들은 동사와 보어가 결합한 동보 구조의 사이에 가능표현 요소인 得나 不를 삽입하여 생성하는 구조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논의에서는, 이 구조에서 가능의미를 표현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동사와 보어가 결합한 'VC'결합체가 부자연스럽거나, 'VC'결합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V得/不C'구조의 생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본문은 이에 대하여 문법화 이론의 각도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의 바탕 위에, 'V得/不C'의 내부구조와 'V得/不C'구조의 생성 문제를 중심으로, 'V得/不C'구조는 문법화가 되어 새롭게 탄생된 구문으로 '가능의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였다. 동시에 가능의미를 표시하는 'V+得/不了', 'V+得/不起' 등의 유형들도 가능의미를 표시하는 구조로 문법화한 'V得/不C'구조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8) 吳福詳(2002: 31)의 표의 내용을 우리말로 바꿈.

參考文獻

- 石毓智·李訥,『漢語語法化的歷程』,北京大學出版社,2004.
- 劉月華,『實用現代漢語語法』,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1983.
- 丁聲樹等,『現代漢語語法講話』,商務印書館,1961.
- 趙元任著(1968)·呂叔湘譯,『北京口語語法』,商務印書館,1979.
- 黃伯榮·廖序東,『現代漢語(下冊)』,高等教育出版社,1991.
- 朴建榮,「來不得」와 「來不了」의 의미상 차이,『中國語文學論集』第51號,2008.
- 徐盛桓,「結構和邊界—英語謂補句語法化研究」,『外國語(上海外國語大學學報)』第1期,2005.
- 沈家煊,「語法化」研究綜觀,『外語教學與研究』第4期,1994.
- 심을식,「문법화에 관한 고찰」,『한국프랑스학논집』제61집,2008.
- 於康,「“V不得”의否定焦點與語法化過程」,『語文研究』第2期,2004.
- 吳福祥,「漢語能性述補結構‘V得/不C’的語法化」,『中國語文』第1期,2002.
- 袁毓林,「論元結構和句式結構互動的動因、機制和條件—表達精細化對動詞配價和句式構造的影響」,『語言研究』第4期,2004.
- 尹有貞,「현대중국어에서 ‘得’자의 문법화 현상 고찰」,『中國語文學論集』第41號,2006.
- 이우철,「현대중국어 ‘V得/不C’구조 연구」,『중어중문학』第27輯,2000.
- 이우철,「중국어 가능보어에 대한 재인식」,『중국인문과학』第37輯,2007.

Abstract

On the Grammaticalization of the Potential Complement Constructions
'V de(得)/bu(不)C' in Chinese

Lee, Woo-cheol

This essay discusses the Chinese Potential Complement Structure V得/不C from the angle of Grammaticalization Theory. It's notable that existing studies on this structure mostly believe that V得C structure is formed by inserting a 得in between the verb and its complement in a VC structure to indicate possibility, and V不C structure a 不 to indicate impossibility. However, these existing analyses are not convincing when describing exactly what elements are indicating the possibility in a V得/不C structure, and when explaining why sometimes deleting 得/不 from a V得/不C structures will not result in a legal VC structure. This essay tries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by applying the Grammaticalization Theory. Author believes that V得/不C structure is a Construction; that indicating possibility is the self-generated meaning of a V得/不C Construction; and furthermore, that V得/不C structure has become a new Construction and has achieved Grammaticalization.

Key words : Chinese, Potential Complement Structure, Grammaticalization, 'V de(得)/ bu (不) C'

투 고 일 : 2013. 09. 10. / 심 사 일 : 2013. 10. 20. ~ 2013. 10. 27. / 게재확정일 : 2013. 10. 28.